

# 교회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집사직에 대한 연구

## - 집사직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중심으로-

연구자 : 장 경 근

소속 :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요약

본 연구는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교회의 4중직을 정립한 칼빈의 집사직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집사제도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칼빈의 성경 주해와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집사직에 대한 이해와 제네바 시에서의 칼빈의 목회사역을 살펴보았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교회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을 실천하고 있지만, 개별적이고, 단회적인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복지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이 부족한데 기인한다. 둘째, 칼빈은 집사직을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해하였다. 칼빈은 집사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한다. 셋째, 칼빈은 집사직을 그 역할에 따라 구체 행정을 담당하는 집사와 빈민과 병자들을 돌보는 집사로 이원화 하여 전문화시키고, 그 활동 영역을 교회 내의 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온 외국인과 타국으로 까지 확장하였다. 칼빈은 집사직을 통해 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와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주제어 : 칼빈, 집사직, 4중직, 기독교사회복지, 교회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I. 서론

한국교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던 선교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왔다. 2011년 한국의 종교단체 관련 사회복지사업 주요 법인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 중 49.5%에 이르는 251개 법인이 기독교 관련 법인으로 보고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139). 그러나 교회의 이러한 적극적인 사회봉사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는 타종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2013년에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도는 19.4%로 성인 3명중 1명은 한국 개신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4: 11).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이근수(2010: 5)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교회 내 인식의 부족과 전문성 없는 평신도 중심의 일회적 행사 위주의 사역을 그 원인으로 지적한다. 기간 한국 교회는 교회의 양적인 성장과 부흥에만 관심을 두어 개인적 차원의 신앙생활과 교회 내적인 활동만을 강조할 뿐 교회의 섬김과 봉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교회는 사회복지를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교회 내 섬김과 봉사의 사역은 비전문적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단회적인 행사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회복지사역이 교회의 부차적이고 선택적인 사역으로 이해되어지는 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부족한데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하겠다. 강재수가 인천광역시 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46.3%에 이르는 목회자들이 사회복지 사역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2008: 71). 목회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지는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목회자의 이러한 인식은 교회의 사회복지사역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성경은 사회복지사역을 성도와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경은 복지의 원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는 봉사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를 제시하고 있다(이재서a, 2013: 25).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법칙으로 봉사를 규정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2:18).” 교회와 성도가 인간을 향하여 봉사하는 사회복지사역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본질에 속한 것이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타락 이전의 조건들을 존속시키시며, 율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인간의 복지에 개입하셨다(이재서 a, 2013: 164-183). 인간에 대한 봉사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셨으며,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선언하시므로 사회봉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적 사명임을 분명히 하셨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  
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4-40).”

초대교회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로서 사회봉사를 실천하였다.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호부조와 구제, 자선 사업에 참여하였다. 초창기 상호부조 차원의 사회봉사는 이후 교회적인 사회봉사 차원으로 확장된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교회의 외적인 삶의 표현에 속하는 것으로 여겼다. 초대교회의 사회봉사는 초대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이은성, 2015: 493-494). 초대교회의 사회봉사는 성도됨의 중요한 자격으로 인식되어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였으며,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전승하였던 사도들의 직무로 여겨졌다(행 6:1-2). 이후 헬라파 유대인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사회봉사를 전담하는 집사직이 세워지게 된다.

중세교회 또한 무차별적인 시혜로 인한 구걸의 문제를 양산하기는 하였지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제도화된 교회와의 연관 속에서 근거를 두고 합법화하였다. 중세교회는 567년 토어회의(The Council of Tours)에서 구제에 대한 교구의 책임을 결의하였고(박영호, 1989: 53),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인 구빈원을 설치하고, 마티쿨라(maticular)라고 하는 빈민 명부를 작성하였다. 6세기 베네딕트에 의해 설립되기 시작한 수도원은 교구와는 별개로 여행자와 순례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비조직적 구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수도원의 재원이 증가하면서 수도원의 무분별한 자선은 전문적인 결식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종교개혁자들 역시 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신학적 체계와 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루터는 근대 교회의 첫 번째 사회복지 복지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공익 헌금함』(Ordinance of Common Chest, 1523)을 제정하였다. 루터는 그 서문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만큼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봉사는 없다(Luther, 1959: 45-172).”고 하였다 루터는 이웃사랑을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중세의 선행의인화 신학에는 반대하면서도 이웃을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았다. 무엇보다도 루터는 이웃에 대한 봉사를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연장으로 봄으로서 이웃사랑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체계를 정립하였다. 하나왈츠와 린드버그는 루터에게 예배는 “이웃에게 봉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Hanawalt and Lindberg, 1994: 100).”을 의미 한다고 하였다.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고 제네바 시의 개혁을 주도한 칼빈은 경제 활동을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으로 이해함으로써 사회봉사를 그의 신학적 체계 속에 포함하였다. 칼빈은 교회의 사회봉사를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보았으며, 교회의 본질로 이해하였다. 칼빈은 가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고 순환시키지 않는 행위는 바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보았다. 도둑질이란 남의 것을 빼앗는 행동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사랑의 법칙을 거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Calvin, 1950: 144). 또한 칼빈은 교회의 사회봉사 체계를 정립하였는데, 그 중에 하

나가 집사직의 회복이다. 칼빈은 중세 시대에 예배 보조자의 역할로 제한받았던 집사를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을 전담하는 목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다(Calvin, 1988: IV, 3. 9).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사회봉사를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이버는 교회가 사회봉사를 본질적 사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신학의 설교 중심의 교회 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Daiber, 1998: 35). 설교의 직무가 강화된 이후 사회봉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서 교회의 선택적 사역으로 밀려난다. 교회의 근본적인 의무에서 밀려난 교회의 사회봉사는 교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조직들에서 벗어난 국내선교 단체와 기관들에 의해 조직화되고 실행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몽주의의 출현으로 인해 교회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회의 사회 봉사적 활동들은 국가의 한 보조기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교회의 사회봉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서의 그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교회 내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상실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교회 사회봉사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집사직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회의 사회봉사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과 교회 사회봉사 전달체계의 개선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교회 사회봉사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개선전략으로 교회 내 사회봉사 사역을 전담할 수 있는 집사직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집사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기술하고 있는 집사직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서 집사의 기원과 제도적 확립,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칼빈이 제네바 교회 목회 가운데 행한 사회봉사 실천 활동 가운데 집사들이 행하였던 역할을 살펴봄으로서, 교회 사회봉사 전달체계로서 성경적, 실천적 모형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회의 직제와 사회봉사와 관련된 칼빈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신학적 관점에서 교회의 사회봉사의 이념과 당위성에 대해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집사직에 대한 칼빈의 성경이해와 제네바의 목회사역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1차 자료(Primary Sources)는 칼빈의 성경 주석과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칼빈의 제네바 사역이 기초가 된 교회법규(Ordonnances ecclésiastiques de)를 참고하였다. 2차 자료들(The Secondary Sources)은 관련 선행연구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회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칼빈의 교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집사직과 관련하여 성경 주석과 칼빈의 저작물, 그리고 제네바에서의 칼빈의 사회복지 사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II. 한국 교회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1.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무엇인가?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행정조직, 서비스 전달자, 서비스의 수혜자 사이의 조직적 장치, 또는 배열이라고 할 수 있다(Gilbert et al., 1993: 267).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그 구조 기능적으로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관리하는 행정체계와 전달자가 소비자와 상호접촉을 가지면서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로 구분된다. 행정체계는 법규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기에 합리적인 운영을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집행체계는 사람에게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특성으로 인해 규정과 법규 너머에 있는 복합적인 인간문제를 다룬다.

또는 운영 주체에 따라 중앙이나 지방 정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공적 전달 체계와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민간전달체계로 구분된다. 기독교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민간 전달체계에 속한다. 공적 전달 체계는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지방정부의 최소단위인 읍, 면, 동으로 전달되는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조직이다. 이러한 공적 전달 체계는 조직구조상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여건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2014년 2월 26일 송파 3모녀 동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 공적 전달체계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다. 송실대 정무성 교수는 한국기독교사회봉사 사회 주관 ‘복지사각지대 - 사회안전망 실현’이라는 토론회에서 “세모녀 동반 자살은 공공의 소극적인 복지 정책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감당할 수 없음을 증거한다(코람데오닷컴, 2014).”고 하였다. 증가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의 충족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의 연계와 적절한 서비스 배분을 통한 통합체계의 전달체계의 수립이 요구된다.

### 2. 한국 교회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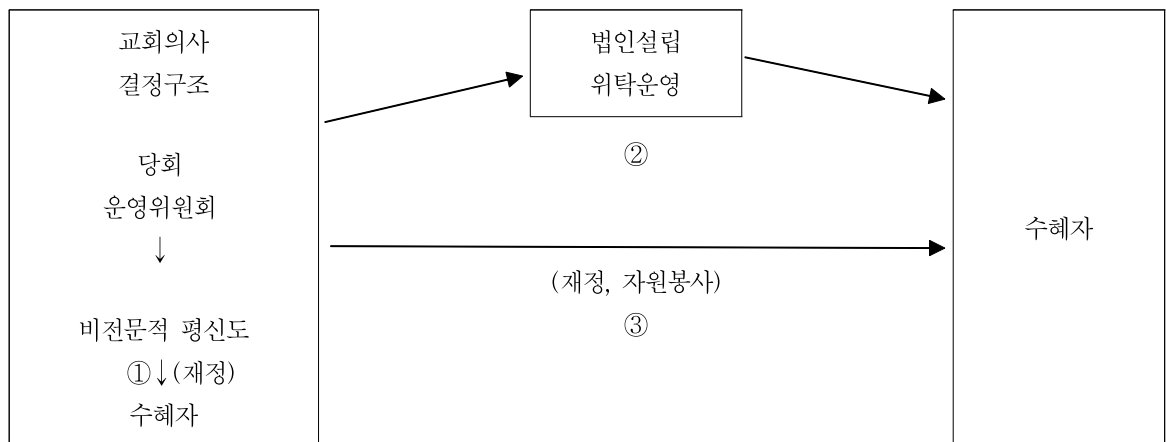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전달체계의 전문성, 신속성, 책임성의 양과 질적인 여부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의 성과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인 한국 가톨릭교회는 전국 사회복지위원회 중심의 수직적 전달 체계와 복지 분야별 전국협의체 및 교구산하 사회복지기관의 수평적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다(손덕수, 2000: 230). 주교회의와 교구, 그리고 본당을 연결하는 수직적 전달체계는 각 단위의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수행을 지원한다. 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는 전국을 통괄하는 기구로 정책수립과 자원개발, 교육 훈련의 역할을 담당한다. 권역별 단위인 교구는 14개 교구에 사회복지회가 설치되어 교구 산하 사회복지 활동을 총괄, 조정, 협의한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당에는 사회복지분과가 설치되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당 내 사회복지 서비스를 조정한다. 수평적 전달체계로는 교구 산하 1,100여개의 사회복지 시설 기관과 8개의 복지 분야별 전국 협의체, 그리고 수도회의 봉사활동이 있다(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2011). 이처럼 전문적인 인력에 의해 형성된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 전달체

계는 가톨릭교회의 사회봉사 실천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개교회 중심적인 한국 개신교 교회들은 조직화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개 교회마다 목회자의 관심과 의도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펼치기는 하지만, 효율적인 전달 체계를 갖추거나 전문화된 인적구조를 갖추진 못하고 있다. 한국 개신교 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는 <표1> 과 같다.

<표1> 한국 개신교 교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표1> 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교회가 해당되는데, 교회 내 사회복지위원회나 부서에 의해 교회 내 수혜자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이다. 이 유형은 교회 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이 비전문적인 평신도에 의해 구성되다보니 수혜자 선정이나 지원 방안에 있어서 적절성과 효율성의 한계와 공적 전달체계의 중복수혜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사회복지 법인을 세워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이다. 교회가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이 정부 보조금에 의지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기독교적 정체성을 상실하거나 교회나 교회 구성원과 상관없이 운영되는 괴리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직접 수혜자를 찾아 재정을 지원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교회가 직접적인 사회봉사를 실천함으로써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긴다는 긍정적 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비전문적인 평신도에 의해 수혜자를 선정하거나 실적 위주로, 단회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효율성과 지속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들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사회봉사의 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에 효율성과 전문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이 세상 속에서 단순 시혜나 자선으로 인식되며, 교회가 막대한 재정과 수많은 봉사활동을 행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의 종교단체 관련 사회복지사업 주요 법인 현황을 보면, 개신교는 불교에 비해서는 2배, 가톨릭에 비해서는 3배 가까운 사회복지사업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2:139).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해야 할 사회적 활동을 묻는 질문에 60.3%가 '봉사와 구제활동'을 꼽았다(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2009). 이러한 한국 개신교회의 비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는 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뿐 교회의 대사회적 인식이나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회의 사회복지가 사역이 본질적 사명인 것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은 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는 사회복지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담케 함으로서 교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사회복지 전문 인력과 전달체계는 교회의 정치구조 내에 위치해야 한다. 교회가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이유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과 전달체계가 교회의 정치구조 밖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의사결정구조와 정책결정 구조에서 배제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

본 연구가 교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집사직에 대하여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집사직은 교회의 항존직으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직분이다. 또한 집사는 교회의 공동의회와 제직회의 구성원으로 교회의 의사결정구조와 정책결정 구조에 참여한다. 교회의 직원인 집사가 교회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자리를 잡는다면, 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그 전문성과 지속성, 통합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교회 구성원을 사회봉사의 실천현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교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능케 할 것이다.

### III. 칼빈의 집사직에 대한 이해

칼빈은 교회의 직제를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의 방편으로 보았다. 칼빈은 1536년 기독교강요 초판에서 중세 교회의 성직자의 계급제도를 부정하며, 목사직과 집사직만을 언급한다(이은선, 2008: 132). 이후 제네바에서의 목회사역을 시작한 칼빈은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1541년 제네바 시의회에 제출한 교회법(The Ecclesiastical Ordinances)에서 처음으로 4중 직제, 목사와 장로, 집사와 교사를 언급한다(Calvin, 1994: 141). 그리고 1559년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 4중 직제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장로교회와 개혁신교회의 4중직을 정립하게 된다(안입섭, 2009: 235-236). 4중 직제 중 집사직은 중세 교회에도 존재하는 직분이었다. 그러나 중세 교회의 집사는 사제를 보좌하여 예전적 기능을 담당하는 사제가 되기 위한 수습과정이었다(이성호, 2009: 68). 중세 교회의 집사는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제를 섬겼다. 이러한 중세 교회의 집사 직분에 대하여 칼빈은 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집사(부제)의 직책이란 ‘사제들을 도우며, 성례 때에 필요한 모든 일 즉 세례와 성유와 성반과 성배의 일을 집행하며, 예물을 가져다가 성단에 놓으며, 성찬상을 준비해서 덮으며, 십자가를 들고 신자들에게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읽어 들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집사의 참된 사역에 대한 말은 한 마디라도 있는가?(Calvin, 2008: 319-320).

칼빈은 직제를 교회의 본질이 구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직제는 성경에 근거해야 하며, 성경에서 제시하는 위상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칼빈은 성경을 근거로 집사를 하나님께서 교회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우셨다고 주장한다(Kingdon, 2009:137). 집사직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살펴보기 위해 집사직이 처음으로 확립된 사도행전 6장 1절~3절과 그 역할과 이중적 집사직분을 정립한 로마서 12장 8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성경 주해에 나타난 집사직에 대한 이해

##### 1) 사도행전 6장 1~6절에 대한 칼빈의 주해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행 6:1-6).”

사도행전 6장은 1~6절은 집사 직분이 처음 확립된 것과 관련되어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구절이다. 또한 이 구절을 근거로 칼빈은 중세 교회의 집사직무에 반대하며, 교회의 구제와 봉사를 교회의 제



도적 임무로 규정하고 그 역할이 교회의 질서로서 집사제도에 주어졌음을 주장한다(이경재, Kingdon, 2014: 17-18).

사도시대 교회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은 급기야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었다는 불평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사도들은 제자회의를 소집한다. 당시의 제자회의는 12제자를 포괄한 ‘민는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최초의 공동의회였다(McKee, 1984: 197).

그리고 제자회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행 6:3).”을 택하게 된다. 그리고 택함 받은 일곱 사람으로 하여금 봉사 사역을 전담하게 한다. 이것은 지상교회가 설립된 이후 세워진 최초의 전문 기관으로, 이 최초의 기관이 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교회의 본질에 속한 것이며, 핵심적인 사역임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이재서b, 2013: 232~239).

칼빈은 본문을 주해하면서 먼저 당시의 집사직은 장로의 역할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봉사가 단순히 집사직만의 역할이 아님을 주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네바 시 사역 가운데 나타난 칼빈의 집사직에 대한 이해’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칼빈은 사회봉사 사역이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우기 이전, 사도들에 의해 구호 활동이 시행되었던 것에 주목한다. “또 사도들은 이를테면 하나님과 가난한 자들의 집사가 되어 구호 활동을 담당하였을 때, 그것은 거룩한 제도였음이 틀림없었다(Calvin, 1844: 172).” 구약시대 이후 사회봉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게 본질로 받아들여지고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사회봉사는 교회의 본질로서 사도들에 의해서 기간 시행되었던 것이다.

칼빈은 사회봉사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2절의 “마땅치 아니하니”를 주해하면서, 이 말은 봉사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은사에 맞는 일의 선택의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나는 차라리 사도들이 판결한 것을 단순히 발표한 다기 보다는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Calvin, 1844: 232).” 제자들은 그동안 두 가지, 말씀 전하는 것과 봉사하는 일을 감당해왔다. 그러나 제자들은 더 이상 두 가지 일의 과오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제자들은 봉사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 중에 가르치는 일에 더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거절한 것이다. 칼빈은 만약 봉사 실천이 이로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 온 것은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한다(Calvin, 1844: 233). 칼빈은 3절을 집사들이 세워진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 칼빈은 집사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을 가리킨다(Calvin, 1844: 234).”고 한다. 칼빈은 집사에게 예전이나 사제의 조력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교황제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집사직에 대하여 조력자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없인 여기는’ 처사라고 한다(Calvin, 1844: 234).

집사의 선택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하여 칼빈은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다른 은사들을 공급받는 것과 상습적으로 구걸하는 자들과 험담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경계해야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Calvin, 1844: 235). 집사를 세우는 과정은 세워진 일곱 사람에 대한 사도들의 안수로 끝난다(6절). 칼빈은 사도들의 안수를 성직수임의 상징으로, 하나님께 받쳐짐(offerti)의 인정으로 보았다(Calvin, 1844: 238).

칼빈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교회가 완전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로 알고 있었던 봉사활동’이 불평을 구제할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대로 존속시킨 것이다”라고 한다(Calvin, 1844: 229-231). 사회봉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도들은 사회봉사가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 사명이며, 하나님의 규범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고자 할 때에도 그 직무를 가리킬 때 ‘디아코니아’를 사용하였으며, 교회가 성장하여 일곱 집사를 세워야만 할 때까지도 그 봉사의 직무를 사도들이 감당했던 것이다(이재서b, 2013: 156).

## 2) 로마서 12:8절에 대한 칼빈의 주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 12:8).”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의와 축복에 대해서 전한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의 도덕적 행동의 규범에 대해서 다룬다. 그 행동 규범의 기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한다(1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2절),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3절). 4절부터 바울은 신앙의 분량에 따른 지혜와 한계를 모든 성도들의 소명과 관련시켜 확증한다. 즉, 4절 이하의 교회에서 확립되기를 원하는 성도의 직분을 묘사하고 있다.

칼빈은 8절에서 구제하는 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의 주해를 통해 이중적 집사직분을 정립한다. 구제하는 자(μεταδιδοὺντας)는 ‘주는 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자이다(Calvin, 1996, 500).”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공적 재원을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하는 책임을 맡은 집사들이다. 긍휼을 베푸는 자(ἐλεοῦντας)는 ‘병자를 보여주는 자’인데,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보살피는 자들로 교회 풍속 가운데 지속되어 온 ‘병자 간호 책임을 맡은 과부들과 다른 봉사자들’을 의미한다고 보았다(Calvin, 1996, 500). 이 두 종류의 집사는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으로서 칼빈은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집사(procureur)와 가난한 자와 환자들을 돌보는데 전적으로 헌신하는 집사가 있었음을 말한다. 칼빈은 집사직을 사도들이 제정한 교회의 영구적이며, 참된 교회의 역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Mckee, 196-198).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교회 안에 사회복지의 행정과 실무를 전담하는 공식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러한 칼빈의 집사직에 대한 이해는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더욱 분명하게 기술된다.

## 2.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집사직에 대한 이해

기독교 강요는 칼빈의 사상을 집대성한 것으로, 기독교 교리를 가장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하여

장로교와 개혁신학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특별히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공적 직분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가르침을 하고 있다. 칼빈은 교회 내 직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힘이 된다고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각의 직분자를 부르시고, 각각의 은사를 분배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어 직분자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장수민, 2005: 767).” 칼빈은 교회의 직분뿐만 아니라, 그 직분자가 감당하는 역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행하게 하시는 것으로 보았다(이신열, 2010: 94).

칼빈은 교회의 직분을 사도와 목사, 그리고 교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로 구분한다. 칼빈은 그 직분들 가운데 집사를 설명하면서, 집사들(deaconws)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롬12:8)고 한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διακονία*(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구제 물자를 분배하며 빈민을 돌보고 빈민 구제금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집사들을 가리킨다(Calvin, 1996, 500).”고 하였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집사직에 대하여 총 3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제 4권 제 3장 교회의 교사들과 사역자들 : 그들의 선출과 직분 편이다. 두 번째는 제 4권 제 4장 ‘고대 교회의 상태와 교황제 확립 이전의 교회 정치 형태’에서 이다. 세 번째는 제 4권 제 14장 잘못된 성례에 관하여(De falsis sacramentis) 편이다. 그러나 세 번째 언급은 로마 가톨릭의 집사직에 대한 잘못된 신학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언급하기에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언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제 4권 제 3장 교회의 교사들과 사역자들 : 그들의 선출과 직분 편에서 집사직을 언급한다. 이 장에서 칼빈은 집사 직분의 기원, 제도적 확립, 그리고 기능을 묘사한다. 먼저 칼빈은 집사직을 교회의 공적 직분으로 보았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집사를 “사제를 보좌하여 다양한 예전적이며 행적인 책무를 도우면서” 사제로 상승하기 위한 사제준비과정으로 보았다. 칼빈은 이러한 가르침에 강하게 반발하였는데(Kingdon et al., 2009: 137), 칼빈은 집사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 위임되었다고 하였다. 나아가 로마서 12장 8절을 근거로 구호품을 배분하는 행정직으로서의 집사와 ‘가난한 자와 환자들을 돌보는데 전적으로 헌신한 자’로서의 실무자로서 집사가 있었다고 한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이외에 다른 공적인 직분을 가질 수 없었던 여자들이 실무자로서의 집사직을 수행하였다고 한다(Calvin, 2008: 69). 칼빈은 집사직이 사도시대 교회 때부터 있어 왔으며, 또한 바로 그가 이해하고 있는 행정직과 실무자로서의 집사직의 역할을 교회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Calvin, 2003: 69).

다음으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 4권 제 4장 ‘고대 교회의 상태와 교황제 확립 이전의 교회 정치 형태’에서 집사직을 언급한다.

칼빈은 감독시대 역시 집사직을 두어 교인들의 헌금을 관리하고 이 수입을 적절한 용도, 즉 사역자들의 생활비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분배하는 일을 감당하였다고 한다(Calvin, 2008: 82). 집사들은 감독의 지도하에 교회의 제정을 가나한 자들에게 모든 일을 분배하는 일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칼빈은 교회 재산의 용도에 대하여 “교회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은 가나한 자들의 재산”이라고 한다. 나아가 칼빈은 교회 수입의 네가지 용도에 대하여 ‘성직자와 가나한자, 그리고 교회의 건물 수리와 해외와 국내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Calvin, 2008: 84). 칼빈은 교회의 구제와 사회봉사

가 교회 내적 구성원에 제한받지 않고 지역과 해외 원조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3. 제네바 시 사역 가운데 나타난 집사직에 대한 이해

16세기 제네바는 각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로 가득찼다. 제네바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간의 교역의 중심지로, 1536년 기욤파렐에 의해 종교개혁이 단행된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 수많은 종교적 피난민들이 제네바로 이주해오기 시작하였다(이상규, 2010: 185). 칼빈은 기욤파렐의 설득으로 1536년부터 제네바의 피에르 성당에서 바울 서신들을 강해하는 성서 교사로 사역을 시작한다. 1537년 제네바 시의회는 칼빈의 ‘요리문답’을 채택하여 모든 제네바 시민은 그의 ‘요리문답’을 배우게 하였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칼빈은 반대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1538년 제네바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그러나 1541년 시의회는 다시 칼빈을 청빙하기로 결정하고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던 칼빈을 초청한다. 초청을 수락한 칼빈은 제네바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말씀과 초대 교회에 일치하는 교회 헌법과 교회 규율의 도입”을 주장한다(Philip Schaff, 2006: 149). 이렇게 해서 채택된 것이 바로 [교회 법규](Ordonnances ecclésiastiques de)이다.

『교회법규』는 제네바 개혁교회의 정치 체제를 확립한 것으로, 교회의 직분과 교회생활의 규례를 규정하고 있다. 『교회법규』는 칼빈의 제네바 시 사역의 표준서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교회 법규』 제 1부에서 네 직분, 목사(pastors, pasteurs), 교사(doctors, docteurs), 장로(elders, anciens), 집사(deacons, diacres)를 다루는데, 칼빈은 이 네 직분을 하나님께서 교회 통치를 위해 제정하신 직분이라고 한다(Calvin, 2011: 638). 칼빈은 네 직분 중 집사직에 대하여 목사 다음으로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여 서술한다. 칼빈은 성경연구와 고대 교회 전통에 근거하여 집사직무를 “가난한 자를 위한 청지기(The Steward of the poor)”로 보았다(이성호, 2009, 68). 칼빈은 집사를 두 종류로 구분하였는데, 구제 재원을 모금하고 기부금, 임차, 연금 등 교회 자산을 관리하는 집사와 구빈원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며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집사로서 직접적으로 병든 자와 가난한 자, 고와와 과부를 구제하는 집사이다(주도홍, 2010: 243). 제네바시를 하나의 교회 구조로 이해하였던 칼빈은 집사의 역할이 교회 내로 제한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칼빈은 중세시대 성직자들에 의해 운영 관리되던 ‘구빈원’의 관리를 집사들에게 맡겼는데, 구빈원에는 교회의 이중적 집사직과 같은 두 종류의 직원, 관리집사들(procurators)과 봉사자들(hospitalers)이 있었다(이상규, 2010: 192). 그들은 각각 재정적 업무를 담당하고, 가난한 자들을 직접 돕고 후원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구빈원에는 4명의 관리집사들이 있었고, 칼빈은 그중 책임자에게 급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Calvin, 1994: 652). 칼빈은 『교회 법규』에서 각각 집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의사 결정을 위한 위임 규정을 제정하였다. 칼빈은 이러한 집사들의 업무 수행과 업무 환경에 대해서 목회자와 장로, 정부대표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평가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칼빈은 서비스 대상자들의 각각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또한 통원자들의 구호소도 유지될 필요가 있으나, 그것 외에도 특별한 돌봄이 요구되는 자들을 위한 무료 숙박 시설이 필요하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 경리 담당자들이 보내는 자들을 수용할 지정된 방이 있어야 한다. ....중략.... 우리의 구호소에는 노인과 환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빈곤 때문에 그들의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바른 품행과 기초 학문, 그리고 기독교 교리로 교육할 선생이 항상 있도록 결정했다(Calvin, 2011: 653).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칼빈은 집사의 직무를 사도적 의무로 보았다. 집사가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적인 사업이었다. 사도들이 수행하던 빈민구제는 장로들과 집사에게 수임되었고, 집사는 사회봉사와 구제 사역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손병덕, 2005: 40). 칼빈은 집사의 봉사 사역을 일시적이거나 비전문적인 사역으로 보지 않았다. 칼빈은 집사를 통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했으며,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칼빈은 이 집사들의 선출을 '컨시스토리'에 있는 목사와 장로들, 그리고 정부 대표들에 의해 이루어지도록하며, 집사들의 업무를 목회자들과 정부 대표에 의해 관리 감독하게 함으로써 교회와 정부가 긴밀하게 연결된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컨시스토리는 일종의 종교법원으로 제네바 교회에서 컨시스토리는 시의회에서 선출된 12명의 목사 장로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교회법정이면서 동시에 제네바의 법정으로 기능하였다. 이 제도는 장로교회의 정치제도인 노회, 대회, 총회의 기원이 되었다(이억주, 2008: 13-19).

#### IV. 결론 : 교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집사직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전달 모형

칼빈이 그의 저서에서 집사직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직분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사가 감당해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서로 봉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창 2:18).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훼손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서로 봉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임을 지속해서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스스로 그 봉사를 가르치시고 실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봉사를 자신의 본질적 사명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세속화된 교회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본질적 사명을 인정하지 않으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봉사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는 교회의 인식 개선과 복음전파 사역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본 논문은 칼빈의 집사직분 이해를 통해 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제시하였고, 집사직의 제정은 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칼빈의 이중적 집사 직분을 통해 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단순히 개인적, 일회적인 행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의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단차원의 기독교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의식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강재수(2009)가 인천광역시 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 교회의 92%가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에 있어서 의사 결정을 담임목회자 또는 담임목회자가 주도하는 당회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에 있어서 목회자의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런데 동 조사에서 사회복지활동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인식하는가? 라는 질문에 46.3%가 사회복지 활동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응답 하였다(2009: 72-73). 이러한 응답 결과는 사회복지에 대한 목회자들의 비성경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목회자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신학 교육 없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최무열(2003, 221-225)의 조사에 의하면 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그리고 선교학과가 설치된 신학계 대학 및 종합대학 40개 중에, 사회복지 교과목이 필수과목이나 선택과목으로 개설된 학교는 절반인 20개이고, 신학과 및 관련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40개 대학원 중에 사회복지 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대학원이 26개라고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단과 신학교 당국이 정책적으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원 과정에서 기독교사회복지, 교회 사회복지 과목을 개설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인식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또한 교단 총회 차원에서 사회복지 관련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여 기존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서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둘째로 교회는 교회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현 직제를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직제로 변화시켜야 한다. 칼빈이 반대하였던 중세교회는 직제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기 보다는 교회의 직제자체를 교회의 본질로 이해함으로 직제의 유지를 위해 역할 하였다. 칼빈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 개신교회는 최근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반대하였던 중세교회의 직제체제를 닮아가는 경향이 있다. 교회의 직제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며,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Calvin, 1996: 459). 4중 직제 중 교회의 집사는 이웃에게 봉사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칼빈은 세움 받은 집사들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 특히 종교적 자유를 위해 피난 온 사람들을 봉사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가 교회의 본질적 사역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직제인 집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교회 내외의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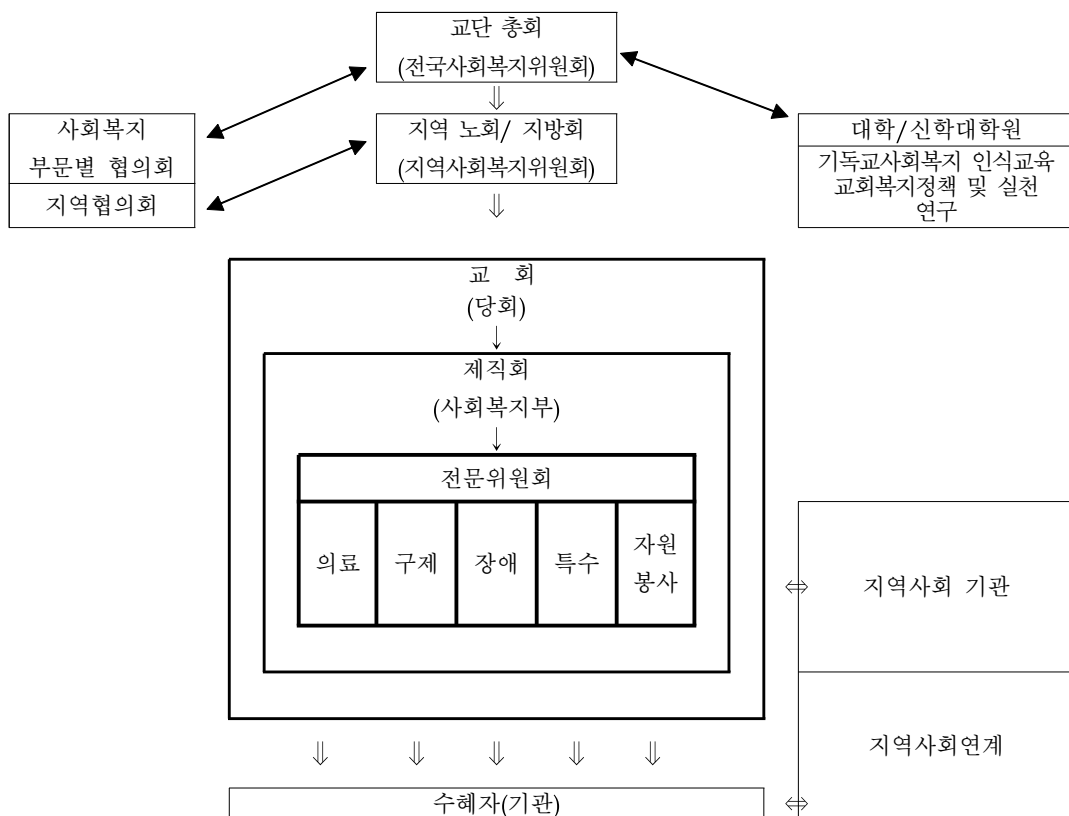
셋째로 교회는 기독교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전문가들을 교회의 사회복지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양적인 면에 있어서 타종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사회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심각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는 단지 운영자의 윤리적인 문제에 그 원인이 있기 보다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의 한계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 기독교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사회봉사 현장 속에서 기독교 사회봉사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기독교 사회봉사 실천을 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별로 시행되던 사회봉사 활동을 연합하고 재 조직화 할 수 있는 범교단적 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양화되어가는 사회 복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복지의 총체성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단 산하 노회와 총회, 그리고 복지 분야별 협의체를 통합하는 범 교단적인 사회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톨릭교회가 개신교보다 부족한 법인과 시설을 보유, 운영하면서도 사회복지 활동을 통한 긍정적 대외 신뢰도를 형성하는 이유는 가톨릭교회 산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기 때문이다. 개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증가하는 복지수와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기에는 자원과 전문성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 교회간의 사회복지 활동의 중복으로 인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범교단적 전달체계를 구축한 타 종교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비해 전문성과 효율성이 낮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단적 차원에서라도 개 교회에서 운영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기독교사회복지 기관과 시설들, 그리고 복지 분야별 기독교 협의체를 통합하여 교단산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한다. 교단 총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개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연계하고, 교단 산하 사회복지 각 분야의 협의회를 조직하고, 효과적인 역할의 분담을 통해 조직의 협력망을 강화한다면, 개 교회의 사회복지 역할은 강화될 것이다. 교단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협력망을 통해 정책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정체성과 전문성을 담지해간다면, 교회의 기독교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와도 연계해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근거하여 교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모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교회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 참 고 문 헌

- Calvin, J. (1536) *Prefatory Address to King Francis I of France, 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양낙홍 역. (2008). 『기독교강요(초판)』,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Calvin, J. (1540). *Commentary of the epistle to the Romans*. by John Owen. (1996). Grand Rapids, Mich. : Baker Book House.
- Calvin, J. (1552a) *Commentary upon The Acts of The Apostles*. by Henry Beveridge. (1844), Mich: W.B. Eerdmans Pub. Co.
- Calvin, J. (1552b) *The commentary upon the Actes the apostles*. 신운수 역 (2014). 『존 칼빈 사도행전 주석』,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Calvin, J. (1556) *John Calvin's Sermons on 1 Timothy*. 『칼빈의 디모데전서 강해(상)』. 김동현 역. (2002). 서울: 엘멘.
- Calvin, J. (1559) *Prefatory Address to King Francis I of France, 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김종흡 역 (1988). 『기독교강요』, 서울: 생명의말씀사.
- Calvin, J. (1561). *Ecclesiastical Ordinances, 1561, in Paradigm s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eds.by David W. Hall and Joseph H. Hall .(1994). Grand Rapids: Eerdmans.
- Calvin, J. (1563). *Commentaries on the Four Last Books of Moses Arranged in the Form of a Harmony*. by Charles William Bingham. (1950). 4 vols. *Calvin's Commentaries*. Grand Rapids, MI: Eerdmans.
- Daiber, Karl Fritz. (1989). *Diakonie und kirchliche Identität*. 황금봉 역. (1998).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봉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Emily Albu Hanawalt and Lindberg, eds. (1994). *Through The Eye of A Needle: Judeo-Christian Roots Of Social Welfare*. Kirksville: Thomas Jefferson.
- Gilbert, N., Specht, M., & Terrell, P.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1993.
- kingdon, R. M (2009), “칼빈의 집사직분 이해 -그 기원은 사회적인가 또는 신학적인가?.” 『칼빈과 사회』.이신열 역.부산: 개혁주의 학술원
- Luther, M (1959). *Luther's Works*, eds. Jaroslav Pelikan and Helmut Lehmann. vol. 45:172-3.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McKee, E.A.(1984)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Travaux d'Humanisme et Renaissannce*. Geneva: Droz.
- Philip Schaff. (1885). *Constitution and Discipline of the Church of Geneva*. 정수민 역. (2006). 『개혁신앙의 산실 제네바 교회』. 서울: 칼빈아카데미.
- Shelley, B. L. (2004). *Church history in plain language*. 박희석 역. (2011).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Weber, O.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2001). 『칼빈의 교회관』,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 Wendel, F. (1963)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김재성



역. (1999)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 김은수 (2008). 『기독교 사회복지』. 서울: 형지사
- 김주한 (2002). 『마르틴 루터의 삶과 신학 이야기』.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 김형식·이영철·신준섭 (2001). 『사회복지 행정론』. 서울: 동인.
- 박건택 (2011). 『칼뱅 작품 선집 II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 박건택 (2011). 『칼뱅 작품 선집 VII』.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 박영호 (1989). 『기독교와 사회봉사』. 서울: 기독교문선선교회.
- 손병덕 (2005). 『기독교사회복지』.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부
- 안은찬 (2007). 『칼뱅의 목회신학』. 서울: CLC
- 안인섭 (2009). 『칼빈과 어거스틴』. 서울: 그리심.
- 이상규 (2010). 『칼빈과 구호활동』.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 이재서 (2013a). 『기독교사회복지의 근원』. 서울: 도서출판 세계밀알.
- 이재서 (2013b). 『사회봉사의 성서 신학적 이해』. 서울: 도서출판 세계밀알.
- 장수민 (2005). 『칼빈의 기독교 강요 분석 II』. 서울: 칼빈 아카데미.
- 고경환 (2006).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분석”. 『보건복지포럼』. 115. 65-73.
- 남희수 (2013). “칼빈의 사회복지적 고나점에서 조명한 목회사역 연구”. 『교회사회사업』. 22. 123-155.
- 손득수 (2000). “사회복지를 향한 가톨릭교회의 사회봉사”. 『한국사회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7. 206-249.
- 이경재 (2014). “칼빈의 기독교사회복지에 나타난 이념과 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실천학회지』. 7-29.
- 이근수 (2010). “한국교회 섬김의 현황과 전망”, 『한목협 제17차 열린대화마당 주제발제』. 학목협.
- 이성호 (2009). “바른교회 바르게 세우기: 직분에 대한 칼빈의 이해.” 『신학정론』. 27(1). 51-78.
- 이신열 (2010). “칼빈의 은사 이해”. 『성경과 신학』. 53. 79-107.
- 이은성 (2015). “교회 신앙교육에서의 사회봉사 교육과 실천과제”. 『신학과 실천』. 10. 485-512.
- 이은선 (2008). “칼빈의 교회론과 직제의 상호관련성”. 『신학지평』. 21. 125-151.
- 최무열 (2003). “한국교회 사회봉사에 영향을 미친 제 요인에 관한 분석적 소고” 『교회사회사업』. 221-225.
- 강재수 (2008). “목회자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인식과 참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 이억주 (2008). “장 칼뱅 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록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개혁주의 학술원 (2009) “칼빈과 사회”,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총서 3』. 고신대학교 개혁주의 학술원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09).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한국사회복지연구소 (2001). 『기독교와 사회복지』. 서울: 홍익재.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2011). 한국천주교사회복지편람. 서울: 빅벨출판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1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7052> (검색일 2016. 9. 19) “복지의 사각지대 교회가 적극 찾아내자”

뉴스미션 2007. 5. 12일자 “신학교 사회복지학 과목 도입 ‘시급하다’.. 필요성은 공감.”